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 팩스 715-9186

수신 : 각 단체 「연대회의」담당
매수 : 1

전제실무회의 공고

때 : 9월 18일(월) 오후 7시

곳 : 인권운동사랑방

안건: ① 연대회의 출판사업에 관한 건

② 제네바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실무회의 참가단 조직에 관한 건

③ 기타: 연대회의 활동방향에 관한 건

1. 연대회의 출판사업에 한 출판사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책의 대상과 내용 분량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강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해설논문(5개 정도)

2부: 조약에 따른 민간·정부 최초보고서 전문

3부: 민간단체의 최근 연구·조사물(민간보고서에 분량상 신지못한 자료를 중심으로)

예) 지역타아현황, 방과후 학교현황, 어린이도서출판현황, 학교주변환경조사, 시설문제 조사 등

부록: 관련단체 프로필

* 각 단체에서는 회의 참가시 각 단체에서 제출가능한 자료목록, 단체 프로필(A4 1매 분량), 논문필진으로 추천할 만한 분들의 명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디스켓으로 제출해주셨으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2. 대표단의 제네바 파견

대표단의 자격은 1) 영어구사 2) 유엔인권센터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이해 3) 민간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아야 하며, 현재 연대회의 재정상 일정정도 참가비용을 자기부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당 참가비용은 150만원 가량이며, 제네바 체류기간은 11월 22일을 전후한 일주일 가량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연락처)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 팩스 715-9186

수신 : 각 단체 「연대회의」담당자

매수 : 1

발신 : 연대회의 감사 류근호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민간단체보고서 수정본 최종 검토회의 공고

일시: 6월 27일(화) 오후 7시

장소: 인권운동사랑방

안건: 보고서 수정본 및 영문본 검토

기자회견 및 추후일정 결정

1. 5월달의 기획사업은 각 단체의 협조속에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중앙일보와의 공동기획시리즈가 5월 5일부터 7회에 걸쳐 게재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7회에는 연대회의 공동대표인 이윤구, 이오덕 선생님과 실무대표인 이기범 교수님의 좌담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기획시리즈의 복사본이 필요하신 단체에게는 간사에게 연락주시면 곧 보내드립니다. 둘째,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관한 홍보물을 2만장 제작하여 어린이날 행사장을 중심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아직 홍보물을 가져가지 않은 단체께서는 이번 회의에 오셔서 단체에 필요한 양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 취합된 초고를 검토하여 아동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지침에 맞도록 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영역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 한글수정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사오니 각 단체 담당자와 필자의 검토를 바랍니다.
 4. 보고서의 서론은 아직 집필되지 않았습니다.
 5. 보고서 최종 검토회의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 참석시 보고서 내용에 보충할 점, 수정할 점, 서론에 꼭 넣고 싶은 내용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하시더라도 보고서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꼭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민간단체보고서는 7월 1일까지 제네바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오니 각 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 팩스 715-9186

수 신 : 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오덕, 이윤구, 주정일, 한승헌 님

발 신 : 연대회의 간사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1. 연대회의 사업보고

1) 연대회의 결성식과 기자회견: 3월 15일 홍사단 강당

- * 참석인원 100여명
- * 서울방송, 평화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시민의 신문, 인권하루소식 등이 현장 취재

2) 조직현황

- * 연대회의 소속단체가 결성 초기의 15개 단체에서 21개 단체로 늘어남

3) 보고서사업

- * 4월 24일 초고 검토모임을 거친 후 각 단체 회람
- * 5월 각 단체 수정원고를 모아 이기범 교수(실무대표)가 정리
- * 6월 영역의뢰
- * 6월 24일 현재 영역마침
- * 6월 27일 보고서 최종 검토모임 예정
- * 감수가 끝나는데로 제네바로 발송할 예정, 일정상 7월 초까지 제네바에 도착해야 함.

4) 홍보사업

- * 5월 어린이달 기획시리즈 -연대회의와 중앙일보의 공동기획으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라나" 시리즈 7회에 걸쳐 내보냄
- *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새누리 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부산일보에 인터뷰와 보도기사 나감.
-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관한 만화홍보물 2만장 제작. 배포

5) 해외연락사업

- * 제네바의 NGO Group for the CROC와 지속적인 연락취함.
- * 담당자인 Laura Theytaz-Bergman은 한국의 민간단체보고서 사업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조직적으로 준비되고 있다는 소감과 함께 최대한의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함.

2. 재정보고(만원단위로 환산)

수입: 각 단체 분담금 202만원

지출: 결성식 47만원

연대회의홍보자료집 15만원

만화홍보물제작 55만원

복사.발송비 30만원

번역비 50만원

187만원

잔액: 5만원

* 민간보고서 비엔나발송비용, 민간보고서와 정부보고서·기타 자료를 합한 '종합자료집' 발간비용이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각 단체 분담금은 각 단체의 재정규모를 생각하여 민간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재정만을 모았습니다. 종합자료집 발간비용으로 100만원 정도의 재정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공동대표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민간보고서 한글본을 동봉하오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올 11월 22일(수)에 열린 사전실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정문 대표를 임명시킨 가운데 한국정부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으로 민간보고서는 이 회의의 주요 자료로 이용되며, 민간단체대표의 참석도 허용된다. 보고서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11월의 정기회의에서 이뤄지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보장에 가장 큰 필요 요소가 되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권고'를 하게 된다.

2. 이 보고서는 유엔의 자유권조약(92년), 사회권 조약(95년) 및 대해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을 때 이어 한국 민간단체들은 이번에도 다양한 제안을 하는 보고서가 된다.

21개 단체와 10여명의 협력이 참여하여 만든 민간보고서에는 아동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각종 권리상황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현장활동가와 학계 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실상황에 기초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민간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체계와 분량(20쪽을 넘어서는 안됨)으로 만들어졌다.

〈민간보고서 차례〉

서문

제1장-조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제3장-일반원칙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연락처: 140-150 서울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01호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전화 : 715-9185, 팩스 : 715-9186

수 신 : 각 신문사 사회부, 아동담당 기자
발 신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문의: 715-9185, 류은숙)
공동대표: 한승헌(변호사), 이윤구(서울평화교육센터 원장/한국선명회회장)
주정일(아동학자), 이오덕(교육학자/우리말연구소소장)
제 목 :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대한 민간보고서 제출에 관한 보도요청
전송대수 : 4대

민주언론의 창달과 인권의 증진을 위해 애쓰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아동·인권관련분야의 2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7월 7일,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에 의거하여 공동작성한 민간보고서(SUPPLEMENTARY REPORT)를 제네바 소재의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민간단체 그룹(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발송하였다. 이보고서는 NGO Group을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소속 위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올 11월 22일(수)에 열릴 사전실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정부 대표를 참석시킨 가운데 한국정부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으로 민간보고서는 이 회의의 주요 자료로 이용되며, 민간단체대표의 참석도 허용된다. 보고서에 대한 본심사는 내년 1월의 정기회기에서 이뤄지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보장에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는 점을 지적하고 관련사항에 대한 '권고'를 하게 된다.

2. 이 보고서는 유엔의 자유권조약(92년), 사회권 조약(95년)에 대해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보고서를 제출하여 성과를 얻은 데 이어 한국 민간단체로는 세번째로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가 된다.

21개 단체와 10여명의 필진이 참여하여 만든 민간보고서에는 아동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전반적 권리상황이 서술되어 있다. 특히 현장활동가와 학계 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현실상황에 기초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본 민간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른 체계와 분량(20쪽을 넘어서는 안됨)으로 만들어졌다.

<민간보고서 차례>

서론

제1장-조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제3장-일반원칙

3. 참조사항

1) 관련조약

유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기존의 번역어이나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 연대회의에선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으로 부르고 있음. '협약' 보다는 '조약' 이라 하는 것이 조약의 강제성과 권위를 높여주며, 조약에서 말하는 아동(child)은 18세 미만자를 가리키기에 '어린이·청소년'이라 한것임.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이하 「조약」)은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고 1994년 현재 160여개국 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1년 12월에 본 조약을 비준하여 가입국이 되었으며, 이는 우리 정부가 조약에 열거된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조약 44조 1항의 "조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그 후 5년마다", "조약의 진전상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에 따라 94년 11월에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정부보고서는 'UN 아동의 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심사를 받게 된다.

'유엔 아동의 권리위원회'는 심사의 정확성과 풍부함을 위해 해당국 민간단체의 보고서 제출을 장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 11월에 회기전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여 한국 등 6개국의 정부보고서를 예비검토할 예정이다. 회기전 실무그룹(Pre-Sessional Working Group of the Committee)은 정부보고서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의 보고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검토하여 가입국에서의 조약의 실현여부를 묻는 질문목록을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질문에 대해 해당국 정부는 서면 응답을 준비해야 한다. 한편 민간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는 실무그룹회의에 대표자를 파견하여 보고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본심사는 아동권리위원회의 연례회기(96년 1월, 제 11차 회기 예정)때 이루어지며 전문가와 각 국 대표들 사이에 토론이 이루어진다. 토론의 결말에서, 위원회는 토론의 쟁점을 반영하고 특별한 추가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을 지적하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시한다.

2)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구성

공동대표 : 이오덕(李五德 교육학자/우리말연구소 소장) 주정일(朱貞一 아동학자)

이윤구(李潤求 서울평화교육센터 원장/한국선명회 회장)한승헌(韓勝憲 변호사)

실무대표 : 이기범(李起範 숙명여대 교육학과, 공동육아연구회)

실무간사 : 류은숙(柳銀淑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참가단체:

주 관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공동육아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스리기선교회/어린이도서연구회/열린글 나눔살터/인권운동사랑방/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자원활동단체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인권위원회/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OMEP세계유아교육기구 한국위원회/인간교육실현전국학부모연대회의

참 관

또 하나의 문화(교육소모임)/여성단체연합/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성폭력상담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개 인

노혜련(교수, 숭실대 사회사업학과)/안창도(교육민회)/이용교(한국청소년개발원)/장호순(사회교육원)

3)그간의 연대회의 활동

- 3월 초 집필분야, 집필팀을 구성. 세부계획 완성
- 3월 15일 연대회의 결성식 및 기자회견
- 4-5월 보고서 한글본 집필
한글원고 보완 완료 / 어린이달 기획시리즈 7회 중앙일보에 게재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 관한 만화홍보보 2만장 제작 배포
- 6월 보고서 영역
- 7월 7일 영문보고서 완성, 제네바로 발송

-이후 일정-

- 그간의 활동상황과 정부·민간보고서를 종합한 자료집 발간
- 1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사전실무회의에 대표단 파견
- 정부대표와의 토론회 제안
- 어린이·청소년 인권상황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

-끝-


류은숙 간사님께

보내주신 CRC 민간단체 보고서는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저희 UNICEF는 지난달 관련전문가들과 기관책임자들을 대상으로 CRC Committee를 구성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과 홍보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와 힘을 합하여 일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5.8.29

유니세프
조정관 이배근 

P.S. 사정심사치영으로 해서 부탁을 추가로 요청합니다.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한위 C-95021

수신: 이기범 교수

제목: CRC Committee 제1차 회의 개최의 건

성하의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유니세프는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1995년 현재 전세계 178개국이 서명 비준한 어린이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국내 이행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온 바, 1995년 본회 중점사업의 하나인 CRC의 국내 홍보와 실천을 위한 CRC Committee 구성 및 사업계획 토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임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일시: 1995년 8월 18일 (금) 11:00 - 13:00
2. 장소: 유니세프 회의실
3. 참석예정자: 14명 (명단 별첨)
4. 토의내용: CRC Committee 조직 및 사업계획 토의

첨부: 유니세프 CRC 위원회 목적, 구성 및 위원명단 1부 끝

1995. 7. 24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박 동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유니세프 CRC 위원회

1. 목적

-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CRC)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홍보한다.
- 2) 협약상의 의무이행 달성을 촉구하며 진전사항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에 실천사항을 제시한다.
- 3) CRC 국가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NGO 의견의 반영을 촉구한다.

2. 구성

- 1)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CRC가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 2) 위원회에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두며 유니세프직원이 간사가 된다.
- 3) 위원회는 연 4회의 정기모임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활동을 전개한다.

- CRC 국내이행 촉구
- CRC 해설집 발간
- CRC Workshop 개최
- CRC에 관련된 NGO Monitoring
- CRC 정부보고서 검토 및 의견제시

3. CRC Committee 위원

- 김영정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 이상혁 유니세프법률가클럽 회장
- 정인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과대 교수
- 조규환 은평천사원 원장
- 이기범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 - 정기원 보건사회연구원 실장
- 이재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 임영숙 서울신문 문화부장
- 노혜련 송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교수
- 박동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임재홍 외무부 인권사회과장
- 박병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장
- 조성선 서울시 중부교육청 학무국장
- 안창호 법무부 인권과 검사

015
115
4817
436
314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 팩스 715-9186

제 4차 실무회의

때와 곳: 1995년 9월 18일(월) 오후 7시, 인권운동사랑방

참석:

- 안건: 1) 경과보고
2) 출판사업 기획
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실무회의 참가준비
4) 기타

1) 경과보고

<1> 연대회의 경과보고

2월 9일 1차 준비모임

2월 21일 2차 준비회의

3월 15일 결성식

4월 10일 제 3차 실무회의

4월 24일 보고서초고검토모임

5월 어린이달 기획시리즈-중앙일보와 공동기획으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라나" 시리즈 7회 연재
만화홍보물 2만부 제작.배포

6월 27일 수정본 최종 검토회의

7월 7일 영문보고서 완성. 제네바 발송

11월 22일(수) 오전 한국보고서 검토예정

기타:

*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세누리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한겨레 21, 부산일보에 인터뷰와 보도
기사 나감

* 제네바의 NGO Group for the CROC와 지속적인 연락취함.

<2> 재정보고

수입: 234만6천원

지출:

정부보고서구입 7만2천원

결성식 68만2천5백원 (장소대여 30만, 자료집 15만, 뒷풀이 18만, 기타)

영역자사래비 40만원

권리조약홍보사업 56만3천3백5십원

우편발송비 10만5천4백3십원

복사.제본비 22만8천4백9십원

잡비(교통비.운반비.회의다과) 11만5천8백2십원

-----계 216만7천5백9십원

잔액 17만8천4백10원

* 광고:

1) 유니세프는 8월에 관련전문가와 기관책임자들을 대상으로 CRC Committee를 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 위원회는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연대회의와 상호협조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2)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는 "청소년의 역사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갖습니다. 이번 민간보고서 사업에 참여하신 이용교 선생님은 "청소년복지의 변화와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십니다. 연대회의 소속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때와 곳: 9월 20일(수) 오후 1시-5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

2) 출판기획안

제목: ()

출판사: 내일을 여는 책(대표 황덕명)-민들레문고, 내일을 여는 교육, 신나는 특별활동, 내일을 여는 교양, 내일을 여는 시, 내일을 여는 아이들, 내일 교육학 총서 등 출판

조건: 보통 초판 1천권 출판시 인세 8-10% → 책동세 증가.

내용: 들어가는 글-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서문

I 부-어린이권리조약 해설논문 5-6개

가안:

어린이권리조약의 역사-류은숙

어린이권리조약 해설-

아동권리국제협약 및 세계정상활동계획의 국내이행성과에 대한 연구-노혜련

어린이권리조약의 국제법적 성격-민변

어린이인권조약과 아동관의 변화-이기범

각 단체의 집필희망주제 및 집필자-

II 부-정부최초보고서, 민간보고서

III 부-관련자료: 민간보고서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들, 각 단체 최근 활동보고 등

예) 어린이도서출판현황, 육아시설현황, 학교주변유해환경조사, 가출의식조사, 방과후 학교현황, 지역탁아현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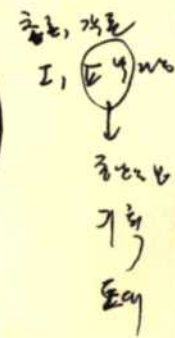
IV 부-어린이인권을 위한 단체소개: 연대회의의 소속단체 프로필, 연대회의의 소개

일정: 9월 말까지 기획확정

10월 말까지 원고취합

11월 초 출판사에 넘김

~~12월 말, 또는 내년 1월 말간 기등~~



* 국내로보 2건

* 기획참가내용

시기 문제

- 보류까지 -

조정해 ; 민간보고서 내용 보충
I 부- 검토해

민변 부원로

민간단체보고서 작성지침

작성: 인권운동사랑방

자료: A Guide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porting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by the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4.

91년 가업.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본 조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조약에 열거된 권리들은 아동의 지위를 위한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을 정의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조약은 시민,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함께 포괄한 유일한 국제인권조약이다. 본 조약을 비준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는 스스로가 이들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본 조약은 최근에 가장 널리 비준된 국제조약이며 다수의 국가가 조약의 원칙에 동의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권리 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위원회는 비준국가들에 의해 선출된 10명의 독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선출과정에는 평등한 지역적 배분이 고려되었다. 위원회는 제네바에서 일년에 적어도 2번의 회합을 가진다. 위원회는 제네바에 자리한 유엔인권센타에 상설사무국을 두고 있다.

위원회는 조약비준국들이 조약하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일에 있어 우선적이고 가장 강력한 책임을 진다. 위원회는 조약을 비준한 국가에 관한 정보만을 접수하거나 고려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아동권리의 침해에 관한 개인적 제소를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고절차

위원회의 심의의 기초는 각 국가가 조약 비준후 2년내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이 최초 보고서의 제출후에 진전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5년마다 제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이 기간 사이에도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최초보고서는 조약상의 권리에 영향을 주기위해 취한 조치와 그 진전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보고는 조약의 실행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조약의 충분한 실행을 방해하는 요소와 어려움을 지적해야만 한다. 위원회는 국가가 보고서를 기초할 때 따라야할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정부가 보고서와 함께 통계자료와 관련 법안의 복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완성된 보고서는 유엔인권센타에 제출되며, 위원회가 검토 일정을 잡는다. NGO Group은 어떤 보고서가 인권센타에 제출되었는지와 예상검토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NGO와 국제정부조직과 같은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서면정보를 찾는다. 위원회의 위원들로 이루어진 '회기전실무그룹'의 모임이 열리는 동안에 보고서의 예비검토가 이뤄지며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가 검토된다. 실무그룹은 사전에 제출된 정부보고서에 대한 질문목록을 작성한다. 정부는 이 질문들에 대해 서면으로 응답을 요구받는다.

그다음 위원회는 '본회의' 동안에 정부가 출석한 가운데 보고서를 검토한다. 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조약의 실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본회의의 토론에 참석한 정부대표에게 권고를 한다. 정부대표가 본회의에 초대되는 이유는 그나라의 실제 상황을 보다 충분히 알아 보기 위하여 위원회가 하는 질문과 논평에 응답하기 위해서이다. 토론의 결말에서, 위원회는 토론의 쟁점을 반영하고 특별한 추가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을 지적하는 의견을 결론적으로 제시한다.

NGO Group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Groupe des ONG pour la Convention relative aux droits de l'enfant
Grupo de ONGs para la Convención sobre los derechos del niño

TO: Ms. Yu Eun-Suk
FAX: 00822-715-9186
FROM: Annemieke Wolthuis
FAX: +41-22-740-1145
DATE: June 26, 1995

Dear Ms. Yu,

Thank you for your letter of August 23, 1995. While Laura Theytaz-Bergman is with maternity leave, Denise Allen and I take over her responsibilities from September to early December.

It is good that two or three persons will represent the Korea NGO Coalition at the pre-sessional meeting with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e official invitation will be sent out by the Secretariat of the Committee by the end of this week according to their information.

You asked us for an opinion on the supplementary report. I think the issues raised are clear and will provide the Committee with good NGO information about the situation of children in Korea in addition and in relation to the government approach. The recommendations made are very useful, but are sometimes quite short and could possibly be worked out in a more practical way in the futur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re normally keen on information about how budget is spent in the country in relation to the general economic situ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question if children are a priority in devising the budget. To give examples of facts stated in the report might be useful as well. See for example issue 20 where it is stated that there are currently many cases of physical and mental abuse. Does this happen in schools, within the family or elsewhere and are there any statistics available?

I will go through the report more thoroughly and will give you some more detailed remarks within two weeks about the substance of the report and the presentation during the pre-sessional meeting. It will be good for you to know some specific interest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which can be useful during the discussion with them. Due to the present workload I am not able to give you the more detailed information before.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and/or the other representatives in November.

Sincerely,



Annemieke Wolthuis, NGO Group

<출판기획안>

서문

I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조약) 해설

- 1) 어린이 인권조약과 아동관의 변화-이기범(숙대 교육학과 교수, 연대회의 실무대표)
- 2) 조약의 역사적 배경-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 연대회의 간사)
- 3) 각 조항마다의 간략한 해설-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4) 조약 및 세계정상활동계획의 국내이행성과에 대한 연구-노혜련(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
- 5) 조약과 우리나라 청소년 인권상황-이용교(청소년개발원)
- 6) 조약의 국제법상의 지위와 성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 7) 기타-참여를 원하는 단체

II부. 유엔과 어린이인권

- 1) 조약에 근거한 '보고절차'에 대한 해설
- 2) 정부최초보고서 전문
- 3) 민간보고서 전문
-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실무회의(11월)와 연례회기(96년 1월) 결과보고-정부·민간대표 발언문 및 한국에 대한 권고문

III부. 한국의 어린이인권단체; 어린이 인권관련 민간단체활동보고

- 1) 각 단체프로필, 연대회의 소개
- 2) 최근활동자료모음: 어린이도서출판현황, 육아시설현황, 학교주변유해환경조사, 가출의식조사, 방과후 학교현황, 열린학교(자유학교) 개설 등.

*부록: 어린이권리조약 전문

10/24일 10월 22/10일 사구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 팩스 715-9186

<경과보고>

1. 활동보고

- * 2월 9일 1차 준비모임
- * 2월 21일 2차 준비회의
- * 3월 15일 결성식
- * 4월 10일 3차 실무회의
- * 4월 24일 보고서초고 검토모임
- * 5월 어린이달 기획시리즈
 - 중앙일보와 공동기획으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자라나" 시리즈 7회 연재
 - 만화홍보물 2만부 제작·배포
- * 6월 27일 수정본 최종 검토회의
- * 7월 7일 영문보고서 완성, 제네바 발송
- * 11월 22일(수) 오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보고서 검토예정
- * 기타
 - 불교방송, 기독교방송, 새누리신문,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한겨레 21, 부산일보에 인터뷰와 보도기사 나감.
 - 제네바의 NGO Group for the CROC와 지속적인 연락과 협력

2. 재정보고

수입: 234만 6천원

지출:

정부보고서구입 7만 2천원

결성식 68만 2천 5백원 (장소대여 30만원, 자료집 15만원, 뒷풀이 18만원, 기타)

영역자사례 40만원

권리조약홍보사업 56만 3천 3백 5십원 (리플렛 2만장)

우편발송비 10만 5천 4백 3십원

복사·제본비 22만 8천 4백 9십원

잡비 11만 5천 8백 2십원 (교통비, 운반비, 회의다과)

잔액: 17만 8천 4백 10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실무회의 참가>

한국정부·민간보고서 검토일정: 1995년 11월 22일 오전 10시-1시

대표단: 이기범(연대회의 실무대표/ 숙대교육학과교수)

노혜련(보고서집필·감수/ 숭실대사회사업학과교수)

류은숙(연대회의 실무간사/인권운동사랑방)

주요활동: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소속 주요위원, 유엔인권센타의 실무진과 면담

한국보고서 심의에 참가, 구두발언

각국 민간대표단과 교류

자료수집

대표단의 준비내용: 위원회 일정과약, 주요로비대상 위원들의 명단 확보, 민간대표 발언
요지문 작성(보고서 내용의 보충·수정 필요, 아울러 시각자료 준비), 보고서관련 주요 자
료의 수집·정리, 최근사건에 관한 스크랩, 기자간담회 준비, 권고안 초고 작성 등

* 연대회의 4차 실무회의에서 위 3인과 민변 1인이 추천되었으나, 민변의 사정으로 참석
이 불가능하여 추천인 중 3인이 회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 회의 참가 비용은 1인당 150만원 가량이 듭니다. NGO Group for CROC의 지원금과
연대회의가 출판하게 될 책의 인세를 예상하여 1인당 80만원을 연대회의가 지원하고 나
머지 금액은 참가자 개인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실무회의 참가를 위한 메모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 자료준비

- 1) 준비문건: 발언요지문/대표단소개문/감사편지/연대회의 소개자료
- 2) 보고서 보완/추가자료:
 - * 보고서 보완/추가 자료 및 사진수집(OHP)
 - * 민간단체의 활동상과 변화를 위한 전략
 - * 아동권 이의 국내최근정보

NGO Group for CRC의 의견

- 민간보고서 서문에서 지적한 4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
- 변화를 위한 민간단체들의 전략은 무엇인가?
- 보고서 8~12항(시민적권리와 자유)은 긴급행동이 요구되는 심각한 이슈들이다. 학교에서의 문제가 주로 지적되었는데 학교외는 어떠한가?
- 보고서에서 잘 서술된 예는 '입양'관련 내용이다.
- 한국에서의 소수자 상황에 관한 정보가 있는가?
- 여아/남아의 지위는 어떠한가?
- 조약에 충실한 사회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가치'가 어느정도 고려되는가?
- 도시와 지방거주 아동간에 심각한 차이가 있는가?
- 아동의 일반적 건강상태에 대한 추가정보가 있는가?
- 한국의 경제수준에서 아동의 욕구가 어느 정도나 고려되고 있는가?

2. 면담예정

- 1) NGO Group for CRC: 20/21일 점심시간/세션 이후 조절가능
21일 면담확정 한국전문가인 Ms.Marta Santos Pais, Mr. Swithn
Mombeshora
아시아지역출신위원 Ms.Flora Eufemio(필리핀)
- 2) 위원명단 별첨
- 3) 기타: 제네바 거주 교포
아동권 이의 면담이 요구되는 조직/개인

3. 일정

- 10/16~28: 연대회의소속단체면담/자료수집
- 10/24: 보고서 검토 1차모임(노혜련/이기범)
- 10/25: 조용환변호사 면담
- 11/7: 보고서 검토 결과취합/역할분담/통계·사진수집병행
발표문작성(이기범)
- 11/9~15 공동대표 면담/기자간담회
- 11/16~18 출국
- 11/22: 한국보고서 심의
~: 국내보고·홍보작업/1월 연례회기준비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 팩스 715-9186

받는이: 각 단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각 단체*

보내는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실무대표 이기범/실무간사 류은숙

내용: 1) 각 단체 소개문 관련 협조요청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분과모임 참가관련 보고

3) 유엔회의 참가단 보고와 기자회견 일정

1) 각 단체 소개문 관련 협조요청

지난번에 배포해 드린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회원 단체 자료' 관련 정보가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단체 소개문은

① 1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

② 연대회의 출판도서 3부(한국의 어린이인권단체)에 수록

할 목적으로 모으는 것이니 각 단체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마감일이 10월말이었습니다. 이번주 9일(목)까지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영문브로셔 제작에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민간대표단이 18일 출국하는 관계로 영문브로셔를 제작할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판사에도 지난달 말까지 보내주시기로 되어있으니 각 단체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분과모임 참가관련 보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정기회기에 앞서 가지는 11차 실무분과모임이 올 11월 20-24일, 제네바에 자리잡은 유엔인권센터에서 열립니다. 이 모임은 다음번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정기회기(96년 1월)에 참석할 정부와 토론할 핵심사안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열립니다. 민간단체의 참여와 자유로운 발언을 돕기위해 이 모임은 비공식이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미리 '보고서'를 낸 민간단체는 이 모임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민간대표의

발언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들과의 토론은 정부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믿을 만한 것인지, 또다른 정보가 있는 것인지,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모임에서 이루어질 토론과 채택될 질문과 권고는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분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줄 것입니다. 실무분과모임이 제기한 질문과 권고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내년 1월에 열리는 정기회기에서 답변해야 하며, 민간단체는 업저버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식초청을 받아 실무분과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연대회의 대표단의 이름과 활동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단

이기범(숙대 교육학과 교수/연대회의 실무대표)
노혜련(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보고서 집필·감수)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연대회의 실무간사)

활동계획

11월 18일 출국
20일 NGO Group for CROC 면담
21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소속 위원 면담
유엔인권센타의 한국전문가인 Ms.Marta Santos Pais, Mr.Swithn
Mombeshora 면담
22일 오전 10시-오후 1시 한국보고서 관련토론-민간대표 발언
23-24일 NGO Group for CROC 주관 민간단체 토론회
한국보고서 관련 대정부질문서/권고안 확정
ILO/WCC/유엔인권센타 등에서 활동하는 교포 면담
25일 귀국
12월 5일 오전 11시 대표단 활동보고와 기자회견(세실 레스토랑)

준비자료

- 1) 지난 7월 7일 제출한 민간보고서 수정본(통계자료보충/최근사례수집/민간단체활동계획 보충/주요문제점 부각)
- 2) 민간대표 발언문
- 3) 연대회의 소속 단체 소개자료
- 4) 아동인권관련 영상자료

재 정

지출:

왕복 비행기표 1인당	128만원
7박 8일 숙식 1인당	45만원
자료	20만원
기념품	3만원

532만원

수입:

NGO Group for CROC 지원금	167만원
연대회의 출판수익(인세 예상분)	70만원
참가자개인부담(1인당 70만원)	210만원
연대회의 재정잔액	10만원

457만원

※현재 부족액이 75만원입니다. 각 단체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3) 유엔회의 참가단 보고와 기자회견

유엔아동권회의 참가단 보고와 연대회의 1년활동을 결산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기자회견과 같이 진행되오니 회원단체 여러분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와 관련자료는 기자회견에 앞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때와 곳: 95년 12월 5일(화)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

내 용: 인사말(공동대표)

유엔아동권회의 참가단 보고

연대회의 결성이후 활동보고

질의응답

연대회의 소속단체 대표자회의와 식사

4) 공지사항

연대회의 담당간사가 류은숙씨의 해외연수관계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의 김수경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연대회의 관련문의는 11월 18일 이후부터는 김수경씨에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1-12 조양빌딩 3층
전화 715-9185 / 팩스 715-9186

받는이: 각 단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담당자

보내는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실무대표 이기범/간사 김수경

내용: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분과모임 참가결과 보고

- 대표단 주요일정/ 회의결과

2) 유엔회의 참가단 보고와 기자회견 일정

3) 연대회의 출판사업보고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 회기전 실무분과모임 참가결과 보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정기회기에 앞서 가지는 11차 실무분과모임이 올 11월 20-24일, 제네바에 자리잡은 유엔인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모임은 96년 1월 열리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정기회기에 참석할 정부와 토론할 핵심사안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리 '보고서'를 낸 민간단체는 이 모임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민간대표의 발언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들과의 토론은 정부보고서에 담긴 정보가 믿을만한 것인지, 또다른 정보가 있는 것인지,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모임에서 이루어질 토론과 채택될 질문과 권고는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분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를 알려줄 것입니다. 실무분과모임이 제기한 질문과 권고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내년 1월에 열리는 정기회기에서 답변해야 하며, 민간단체는 업저버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식초청을 받아 실무분과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연대회의 대표단의 이름과 제네바에서의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단

이기범(숙대 교육학과 교수/연대회의 실무대표)

노혜련(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보고서 집필·감수)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장/연대회의 실무간사)

▶ 대표단 주요일정

11월 18일 출국

20일 NGO Group for CROC의 간사 Annemieke Wolthuis씨와 면담

21일 유엔인권센터 방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소속위원 중 한국담당
Ms. Marta Santos Pais씨와 면담, 민간보고서 주요 이슈 설명.

22일 오전 10시45분-오후 1시 한국 민간대표 이기범교수의 발제와
한국보고서 관련토론(노혜련, 이기범, 류은숙)

유니세프 유럽담당관/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관련자와 면담
유엔인권센터 등에서 일하는 교포와 면담

26일 귀국

12월 5일 오전 11시 대표단 활동보고와 기자회견(세실 레스토랑)

▶ 회의 결과

일시: 11월22일 오전 10시45분- 오후1시

참석: 위원(10명 중 6명)

Hora Eufemio(필리핀/부의장, 당일 회의 주제) Hoda Badran(이집트), Thomas Hamnarberg(스웨덴), Judith Karp(이스라엘) Yuri M. Kolosor(러시아) Marta Santos Pais(포르투갈, 한국담당위원) 등

UNHCR 1인, 유엔인권센터 담당관 2인 참석(유니세프 한국위원회측이 보고서만 제출하고 참석치 않아 유니세프 유럽담당관이 대신 발제), 한국 NGO 3인

진행: 1. 의장의 개회선언/진행절차 설명

2. 한국담당위원의 논평

1) 한국 NGO 보고서가 논리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 구체적인 권고를 제시하여 실천 지향적이다.

2) 한국이 민주화, 경제발전 등을 이루었으나 사회전반의 복지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

3) 한국정부가 제9조 3항(면접교섭권), 제21조 가항(입양제도), 제40조 2항(상소권)등 세 가지를 유보조항으로 두었다. 이러한 유보조항은 한국사회가 아동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4) 외무부 내에 인권과가 설치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인권교육의 실시가 더 필요하다

3. 다른 위원 논평:

1) 정부의 홍보가 부족하다.

2) 아동이 놀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지 않다.

3) 중앙조정기구의 없다.

4) NGO와의 협조가 부족하다.

5) 조약이 어느 정도 정책과 법의 변화에 영향을 끼쳤는지 불분명하다

6) 정부가 정치적 의지나 아동을 사회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적극적 참여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인식이 시민권과 자유권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밖에도 학업부담으로 인한 자살률, 아동과 교사의 자유제한, 최근의 교육개혁 내용,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유교적 문화적 가치관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2) 유엔회의 참가단 보고와 기자회견

유엔아동권회의 참가단 보고와 연대회의 1년활동을 결산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기자회견과 같이 진행되오니 공동대표 여러분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 서: 인사말(공동대표)

때. 곳: 95년 12월 5일(화) 오전 11시 세실레스토랑(☎ 738-1484)

유엔아동권회의 참가단 보고

연대회의 1년 활동보고와 이후 계획

질의응답

연대회의 소속단체 대표자회의와 식사